

문자와 씨름하는 교정 전문가들의 안과 밖

‘단순한 지적 작업’의 특성 지녀…경제성과 전문성이 절충돼야

교정·교열은 시간과 싸우며 책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편집 작업이다. 그래서 교정·교열은 ‘지적인 단순작업’이라는 모순형 용어로 표현된다. 개인이 혼자 할 만큼 노동 집약적이어서 출판계에서는 일찌감치 외주 처리된 부분이지만, 이런 특성 때문에 외주자들은 주어진 출판 일정 속에서 얼마나 완전한 원고를 만드느냐를 고민한다.

가장 먼저 외주처리된 교정·교열

교정·교열 외주자는 프리랜서와 전문업체로 나뉜다. 프리랜서의 경우, 출판사 경력자들이 알음알음으로 맡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규모를 알기 힘들다. 출판사 경력자를 회원으로 둔 한국프리랜서그룹에 등록된 숫자를 보면 250여명 정도다. 전문업체는 2~3년 전만 해도 스무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산글’·‘빨간돼지꼬리’·‘책만드는집’ 등 몇 군데에 불과하다.

한길사·민음사·고려원·창작과비평사·해냄 등 큰 출판사의 외주를 많이 맡아온 ‘산글’은 1990년부터 교정·교열 일을 했다. 그간 해온 책은 ‘창비아동문고 개정판’·《아리랑》(해냄)·《열국지》(민음사) 등. 모여서 일하게 된 까닭은 전문성과 힘을 키우기 위해서다. 혼자 일할 경우, 자신의 교정·교열 작업을 되짚어 줄 사람이 없는 데다 단가 문제에도 소극적이기 때문. ‘산글’은 매년 단가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가협상 자체가 아무 뜻이 없을 만큼 출판계가 위축됐다는 게 그들의 말이다. ‘산글’의 김경숙 씨는 “한권을 맡더라도 출판 본연의 자세에 맞게 전문성을 키우는 일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빨간돼지꼬리’ 역시 1990년부터 교정·교열 외주에 뛰어든 곳이다. 얼마전까지는 ‘옴과버금’이라는 이름을 내세웠다. 민음사·한길사·사계절 등 학술·문예서를 많이 내는 출판사의 일을 맡았다. ‘오늘의 시인총서’·《광기의 역사》·《고구려국어학사》(민음사)·《두 얼굴의 유럽문명》(사계절)·《기억창고》(한길사) 등의 책을 교정·교열했다. 역시 전문성 때문에 모여서 일하게 됐다. 다양한 자료를 쉽게 모을 수 있고 일하는 분위기도 생긴다. 그러나 대표 김수연씨는 “전문성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일정에 쫓들리기

때문에 성실성만 인정받는 게 아쉽다”며 “일이 3~5월 사이, 추석 전후로 몰리는 것도 전문 업체를 꾸러가기 어려운 점”이라고 덧붙인다.

‘책만드는집’은 1997년부터 이 일을 시작해 비교적 최근에 출발한 교정·교열 업체다. 창작과비평사·그린비·자작나무 등의 출판사와 일해왔고 맡은 책도 문예서에서 잡지까지 다양하다. 《세계대전사 1·2》(자작나무)·《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창작과비평) 등 단행본과 《안과밖》 등 계간지가 그들이 교정·교열한 책들. 인혜경씨는 “교정·교열 작업이 자신에게 가장 맞는 일”이라면서도 “영업하는 일이 무척 어렵다”고 털어놓는다. 이들은 물량의 70% 가량을 조판까지 도맡아하는데, 이 경우 일관되게 책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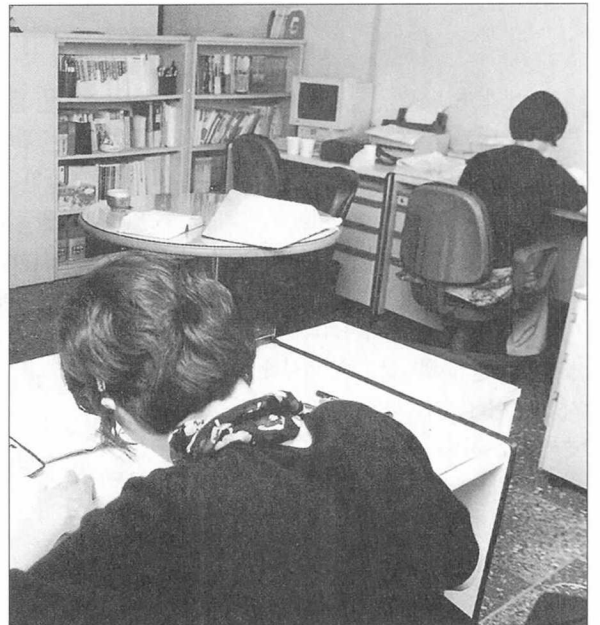
경제성의 원칙에 밀리는 전문성

최근 갈수록 교정·교열의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 이는 교정·교열 외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문제점이다. 출판사는 경제성의 원칙으로 교정·교열 외주를 다룬다. 사내에서도 부가가치가 낮은 교정·교열 업무를 외주처리함으로써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프리랜서 역시 이 경제성의 원칙에 동의한다. 1990년부터 교정·교열 외주를 맡았던 한 프리랜서는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채택근무여서 좋다”고 말한다.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이런 경제적인 이점을 교정·교열 외주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그러나 전문 업체들은 좀 다르게 바라본다. 경제성과 아울러 전문성을 덧붙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글’의 김경숙씨는 “장기적으로 볼 때, 외주자들이 분야별로 특화된다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며 전문적인 교정·교열 외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성은 경제성과 어느 정도 맞부딪히는 면이 있다. 창작과비평사의 김이구 편집국장은 “외주로 나가는 책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책”이라고 말한다. 완전교정이 목표라면, 그만큼 비용은 늘어나기 때문. 그래서 출판사들은 교정·교열 비용이 높은 원고는 대개 사내에서 처리한다.

교정·교열은 책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편집작업이다. 지적인 ‘단순작업’이라는 성격 때문에 외주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성의 원칙만 따질 때 전문성과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 교정·교열 전문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하다. 사진은 ‘산글’의 사무실 풍경.



이렇게 경제성의 원칙으로만 교정·교열 외주를 바라보는 일이 전문업체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전문성을 배제할 경우, 전문업체라 하더라도 그 단가는 아무런 차별성도 띠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정·교열 단가는 시간 당 혹은 매수 당, 또 책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단가는 사전·인문과학서적·자연과학서적·아동물·교양물·문학물의 순으로 낮아지는데 대개 매당 6백원에서 1천5백원 사이에 머문다.

경제성의 원칙만 적용할 때, 단가는 갈수록 낮아진다. 아무래도 외주자의 질보다는 좀더 낮은 단가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출판계의 불황이 깊어진 지난해부터 외주 자체가 줄어들고 등 환경변화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져 권당 10만원이라는 덩핑가가 나오기도 했다. 전문업체도 이런 단가 경쟁에 예외는 아니다. 전문업체들 역시 지난해 대비 10~50% 정도로 단가가 하락했다. 단가의 하락은 자연스레 바리다매를 낳는다. 전문성을 지향하는 전문업체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적 교정·교열의 필요성 설득이 과제

교정·교열 외주자들이 꼽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 일이 상당 기간의 수련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지난 3월부터 교정·교열 외주 작업을 해온 황영심씨는 “10년여 동안 출판사에서 편집·교정 일을 해왔지만 한 부분만을 파고들지 않는 이상 부족함이 따른다”고 말한다. ‘책만드는집’의 인혜경씨 역

시 “영업상의 어려움과 함께 미진한 부분이 남을까하는 걱정이 들 때 힘들다”고 밝힌다. 꼼꼼함, 백과사전적인 지식, 인내력을 모두 갖춘 전문 교정·교열인이 되려면 쉽지 않다. 경제성의 원칙만 따지는 지금 형편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런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해림씨(현대실학사 대표)가 책임 교열을 맡았던 《18세기 조선인물지》(창작과비평사)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초고는 원문과 번역 문뿐. 기간 3개월, 단가 3백만원으로 이 일을 시작한 정해림씨는 번역본의 오·탈자 교정은 물론 원문 정교, 각주 달기, 등장인물 소개, 찾아보기 등을 만드는 작업을 해 초고 2백여 페이지 분량에서 1백여 페이지가 더 늘었다. 원문과 번역문만 실릴 수 있었던 책이 이렇게 체제를 갖추게 된 데는 편집자로서 거의 완벽하게 원고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정해림씨는 “저자와 편집자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며 “교정·교열 과정에서 편집자는 책의 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교정·교열 전문업체 역시 출판물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전문가를 꿈꾼다. 하지만 이들이 헤쳐나갈 길은 험하다. 엄격한 훈련을 거쳐 전문 교정·교열업체로 성장하더라도 경제성의 원칙에 맞서 전문적인 교정·교열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지적인 단순작업’이라는 모순형용어만큼이나 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른다.

— 김연수 기자